

깨끗함에 대한 연구: 세탁행동 Tidiness in Clothing: Consumer Laundry Practice

김 성 은, 이 규 혜*
한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Kim, Seong Eun, Lee, Kyu-Hye*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ya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regards that obsessive tidiness has a relation to laundry practices. H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correlations between obsessive tidiness, laundry knowledge and laundry practice. The respondents were female laundry conductors in the family who were usually housewives. This is because, to construct laundry practice as a routine, respondents should be the main laundry conductor in the family. The findings indicated that obsessive tidiness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ubjective laundry knowledge but had no correlation with objective laundry knowledge. It means that respondents gave priority to following their tidiness standards rather than following objective norm. Moreover, laundry condition control had also correlations with subjective laundry knowledge and fear of contamination. It is construed that respondents judge the effectiveness of laundry practices by observing how effectively stains are removed. However, setting priority to non-contaminant status which is up to one's obsessive tidiness could lead to excessive laundry practice. Although current consumers have better accessibility to search and learn how to do laundry in a sustainable way than before, they have not changed their laundry practice and have kept following their subjective laundry knowledge. It means that laundry practice is habitual behavior that it is hard to chang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ducate consumers in an organized way before they become a laundry conductor in their family.

Key words : Laundry behavior, Laundry knowledge, Obsessive-Compulsive behavior

주제어 : 세탁행동, 세탁지식, 강박행동

* Corresponding Author : Lee, Kyu-Hye
Tel : 82-2-2220-1191, E-mail : khlee@hanyang.ac.kr

1. 서론

세탁에 대한 교육은 국내에서는 중등교육과정 때까지 기술가정 교과나 이와 관련된 과목에서 잠깐씩 다루어지기는 하나(Lee, 2010)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지는 않으며 고등교육과정 이상에서는 이에 관련한 전공이 아니면 배울 기회가 거의 없다. 세탁에

대한 공식적인 교육이 중등교육 과정까지 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중등교육 후에 독립하여 실질적인 세탁 주체가 되기까지 상당한 공백 기간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등교육 이후부터 세탁 주체가 되기까지의 그 시간적 공백 사이에 소비자들은 섬유에 대한 지식 및 지속가능한 세탁 방법을 배우려고 특별히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세탁행동이 객관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임의적이고 주관적이며 경험적이게(Kim, 1984; Nam, 1988; Ryu & Lee, 1999) 되는 원인이 된다.

이들이 독립을 하거나 결혼을 하여 본인이 세탁 주체자가 될 경우에는 주로 어머니에게 물어보는 등의 방법으로 세탁을 진행하고(Lee et al. 2004)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신만의 세탁행동을 형성한다. 그러나 시행착오를 판단하는 기준이 과학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데(Nam, 1988) 그 기준은 옷의 형태가

크게 변형되거나 이염 발생과 같이 가시적으로 오류가 크게 보이는 것에서부터 세탁 후 세탁물의 냄새나 표백이 된 정도와 같이 심리적인 기준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적이다. 특히 심리적인 기준은 결벽이라고 일컫는 깨끗함에 대한 강박의 일종이며 이는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든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마다 깨끗함에 대한 강박의 정도가 모두 다르기는 하나 결국 씻고 빨래하는 이유는 본인이 깨끗함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세탁행동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부들의 깨끗함에 대한 강박 및 세탁지식이 세탁행동 사이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깨끗함에 대한 강박

강박은 개인에게 끊임없이 불안감을 야기하여 정서적으로 불안 상태를 만드는 강박사고(obsession)와 이로 인한 반응에 따른 강박행동(compulsion)으로 이루어져 있다. 강박의 정도를 진단하기 위한 MOCI(Mudselly Obsessional-Compulsive Inventory)나 PI(Puda Inventory)와 같은 척도는 꾸준히 개발되어왔다. Min & Won (1999)의 한국형 MOCI와 PI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논문에 따르면 두 척도 모두 4개의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MOCI의 경우 확인, 의심, 깔끔함, 오염의 요인으로 PI의 경우 확인, 심성통제실패, 오염, 충동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두 논문 모두 오염에 대한 강박 요인이 분석된 것은 깨끗함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강박이 외부 오염원에 의하여 강하게 자극 받기 때문이다.

Leckman 등(1997)은 오염에 대한 강박이 깨끗함을 유지하려는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Jones & Menzies (1997)는 위험 상황에 대한 불안이 높을수록 깨끗함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위험 상황은 외부 접촉 등에 의한 오염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역시 오염 강박이 깨끗함 유지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Jones & Menzies (1998)는 강박을 해소하기 위한 치료요법을 사용하면 깨끗함에 대한 강박이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진행하였으나 유의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처럼 오염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강박은 개인 정도에 따른 차이는 날 수 있으나 반드시 해소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탁행동도 깨끗함을 유지하려는 행동 중에 하나이므로 서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 소비자의 깨끗함에 대한 강박이 깨끗함 유지 행동 중 하나인 세탁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한국형 PI척도 중에서 강박장애를 판단하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활용되는 '충동' 요인을 제외한 강박사고와 관련된 '의심'과 강

박행동으로 관련된 '확인' 및 '오염강박' 요인을 수정 및 보완하여 개인의 깨끗함에 대한 강박과 소비자의 세탁행동과의 관계를 보고자 한다.

2. 깨끗함에 대한 강박과 세탁지식

깨끗함에 대한 사회적 기준은 1차 산업혁명 이후로 급격하게 진화해 왔는데 Jack (2013)은 깨끗함의 기준이 과거 위생 개선을 목적으로 할 때에 비하여 요구되는 요소가 매우 많아졌다고 하였다. 세탁의 기본적인 목적은 오염원 제거이나 현재는 추가적으로 향을 더하거나 건조까지 완벽하게 하는 수준까지 진화한 것을 볼 때 깨끗함의 기준이 심리적인 만족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진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현재 깨끗하다고 하는 통상적인 기준은 사회 전반적으로 높아진 깨끗함수준에 대한 적응 및 준수하려는 개인의 노력(Gram-Hanssen, 2011; Shove et al. 2012)과 더불어 개인의 깨끗함에 대한 심리적인 만족이 다중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세탁 기술 및 관련한 제품들의 성능은 매우 향상된 것과는 달리 소비자의 세탁행동은 소비자가 처음 세탁할 때의 행동과 현재의 행동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이다(Laitala et al. 2011; Shove, 2003). 소비자의 세탁행동이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같이 긍정적인 진화를 보였다면 섬유 특성에 대한 정보, 세탁 기호에 대한 지식, 세탁물의 양에 따른 세제 및 물의 양 조절 등 세세한 조건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야 하나 그렇지 않았다(Kruschwitz et al. 2014), 오히려 세탁을 하고 나서 깨끗해진 상태에 대한 만족이 우선되었기 때문에(Leckman et al. 1997) 소비자의 세탁행동이 객관적 세탁지식을 바탕으로 발전해왔기 보다는 주관적인 인식 및 판단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깨끗함에 대한 강박과 세탁지식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소비자들의 세탁행동 심리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분석이 될 것으로 보고, 세탁지식을 객관적 세탁지식과 주관적 세탁지식으로 나누어 깨끗함에 대한 강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고자 한다.

3. 세탁행동과 세탁지식

공산품품질관리법이 1967년 제정된 이후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및 품질향상에 대한 법 개정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2000년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품질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정보공개 기준은 더욱 높아졌다. 이처럼 생산자의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한 노력은 계속 발전해왔으나, 소비자의 세탁 행동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소비자

들이 세탁 조건 고려 시에 미흡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선행 연구들은 최근까지 꾸준히 보이고 있다(Kim, 2015).

소비자들의 미흡한 세탁행동 문제는 객관적인 지식이 부재하다는 것과 경험적으로도 세탁 실패를 많이 겪어보지 않았던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Shin (2000)은 소비자들이 적절한 세탁법을 찾지 못하는 이유로 섬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Bae & Lee (1994)는 소비자들이 적절한 세탁법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섬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이전에 행했던 본인의 경험에 따라 세탁을 시행한다고 하였다. Choo & Song (2000)는 응답자의 87%가 세탁 시에 옷에 붙어 있는 취급표시를 준수한다고 대답하였으나 객관적으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을 때는 66%가 그렇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는 81%가 취급표시를 따르지 않았어도 손상 경험이 없었기 때문으로 답하였다고 하였다. 소비자들은 본인들의 세탁지식이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이전의 세탁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세탁행동을 지속하고 있다. 게다가 자신들의 세탁행동은 취급표시에 따른 행동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지각하고 있다.

주관적으로 세탁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객관적으로 세탁을 잘하고 있는지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객관적인 지식 전달과 소비자의 정보 이해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어서 경험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면 그 행동을 지속하려는 소비자의 경향 때문이다(Day, 1976). 전문적인 정보를 전해줄 기관이 많고 또 그 모든 것을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해서 소비자 집단 구성원 모두가 균일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소비자가 배우려는 노력을 크게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세탁행동이 결국 경험적 지식에 기반을 둔 습관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세탁행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소비자의 세탁행동을 조사하고 이것이 세탁지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세탁행동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2) 깨끗함에 대한 강박(의심, 확인, 오염강박)과 세탁 지식(주관적 세탁지식, 객관적 세탁지식) 사이의 관계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3) 깨끗함에 대한 강박(의심, 확인, 오염강박)과 세탁 지식(주관적 세탁지식, 객관적 세탁지식), 세탁행동 사이의 관계를 알아본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을 채택하여 수정 및 보완하여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깨끗함에 대한 강박의 세 가지 하위 차원인 '의심', '확인', '오염강박'과 관련한 총 16문항은 Min & Won (1999)의 한국형 PI 문항에서 채택되었다. 세탁지식에 대한 설문 중 객관적 지식에 대한 30문항은 국가기술표준원의 'KS K 0021' 섬유제품의 취급에 관한 표시 기호 및 그 확인 표시방법'에 나온 세탁 기호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주관적 세탁 지식에 대한 문항은 Bae & Lee (1994)에서 소비자의 구입시의 취급표시에 대한 확인 정도와 세탁 시 확인 정도를 측정한 문항 중에서 5문항을 사용하였다. 세탁습관에 대한 설문17문항은 Ko (2007)등의 니트류제품의 세탁 및 관리현황조사에서 사용된 세탁습관에 대한 조사 및 관리방법에 대한 설문을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외에 세탁빈도 및 세탁 시 우선 순위, 성별, 직업, 자녀의 유무 등을 포함하여 설문지 문항을 구성하였다.

3. 조사대상

본 연구는 세탁을 가정 내에서 실질적으로 세탁을 담당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주부를 조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세탁행동의 현황 및 습관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경력이 쌓여 자신만의 세탁 방법이 있는 대상이어야 하므로 주로 30대에서 50대 사이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총 응답자 중에서 30대는 17.3%, 40대는 32% 50대는 29.3%로 집계되었다.

4. 분석

실증적인 연구를 위한 통계분석 방법으로 SPSS 24.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등을 실시하였다. 깨끗함에 대한 강박을 알아보기 위하여 쓴 PI 척도에 대한 하위차원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확인(Cronbach's $\alpha=.67$)', '의심(Cronbach's $\alpha=.62$)', '오염강박(Cronbach's $\alpha=.86$)'으로 확인되었다. Min & Won (1999)에 따르면 강박은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에 해당하는 '의심' 요인과 행동에 해당하는 '확인' 요인 두개의 상관관계가 다른 하위차원보다 높게 나타나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오염강박'과 '확인'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가 더 높게 나왔다. 이는 세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설정되어 오염원에 대한 지각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Table 1.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checking, doubting and fear of contamination

	Checking	Doubting	Contamination
Checking	1		
Doubting	.468**	1	
Contamination	.624**	.414**	1

*** $p < .001$

세탁행동의 하위차원을 추출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과 Varimax 직교회전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추출된 요인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세탁조건 고려'와 '강박성세탁'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누적 설명량은 55.91%로 나타났다.

Table 2. Factor Loadings from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r Items of Laundry Condition Control and Obsessive-Compulsive Laundry

	Loading
Laundry condition control	
The amount of laundry and detergent	.80
Laundry time control according to the extent to contamination	.79
The amount of laundry and water	.79
Control the time of spin drying according to fiber trait	.74
Control the temperature of water according to fiber trait	.52
Obsessive-compulsive laundry	
Have to smell good after laundry	.83
Adding additives like softener or bleach	.72
Feel like smelling odd makes me do laundry	.69
Do laundry right away when it is contaminated	.65

IV. 결과

1. 소비자의 세탁행동 현황

일주일에 얼마나 자주 세탁하는지 물어 본 세탁빈도 문항에서 응답자의 56%가 주 3회 이하로 세탁을 한다고 응답하였고 44%는 주 4회 이상 세탁한다고 응답하였다. 세탁빈도와 깨끗함에 대한 강박, 세탁지식 및 세탁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녀의 수와는 양의 상관관계가($r=.252$, $p<.05$) 나타났고 자녀의 나이와는 부적 상관관계($r=-.294$, $p<.05$)가 나타났다. 이는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많거나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세탁빈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 구성원의 수가 많고 자녀가 어릴수록 세탁물의 양이 많아진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세탁 빈도는 세탁물의 양과 더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세탁 시 우선순위를 알아본 순위척도 문항 분석 결과 얼룩제거($M=4.22$, $SD=1.26$)를 다른 모든 요인들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신경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이 세탁을 할 때나 하고 나서 오염원이 제대로 제거가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세탁이 잘된

유무를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3. Analysis of Laundry Priority

	M	SD
Stain	4.22	1.26
Odor	2.89	1.15
Antibacterial	2.74	1.11
Psychological satisfaction	2.64	1.57
Dimensional stability	2.58	1.14

2. 깨끗함에 대한 강박과 세탁지식 사이의 상관관계

깨끗함에 대한 강박과 세탁지식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반적으로 객관적 세탁지식은 깨끗함에 대한 강박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주관적 세탁지식은 '확인'($r=.313$, $p<.01$) 및 '오염강박'($r=.315$, $p<.01$) 요인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이 깨끗함에 대한 강박이 높을수록 자신들의 세탁지식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세탁지식인지 확인해보는 것보다 자신만의 깨끗한 기준과 세탁지식을 적용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깨끗함에 대한 강박 중에서 '의심' 요인이 세탁지식과 모두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온 것은 우선 '의심' 요인이 강박사고(obsession)이므로 어딘가 세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과 같이 불안한 마음이 계속 자극되어야 하는데 세탁은 세탁물이라는 명확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안할 여지가 적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옳은지 의심하거나 불안해 할 이유가 없어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Table 4.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Obsessive-Compulsive behavior and Laundry Knowledge

	Checking	Doubting	Contamination
Subjective knowledge	.313**	.118	.315**
Objective knowledge	.166	.071	.054

** $p < .01$

3. 깨끗함에 대한 강박, 세탁지식과 세탁행동 사이의 상관관계

깨끗함에 대한 강박 및 세탁지식과 세탁행동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세탁조건고려는 '주관적 세탁지식'($r=.377$, $p<.01$) 및 '오염강박'($r=.291$, $p<.05$)과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세탁우선순위 분석에서 얼룩제거가 제일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을 생각해볼 때, 소비자들이 세탁조건고려 시 오염원 제거를 주요 세탁 목적으로 두고 있어서 '오염강박' 요인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염이 완벽히

제거가 된 상태가 세탁이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역시 객관적 세탁지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가지기 보다는($r=.173$, $p>.05$) 주관적 세탁지식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강박성세탁은 객관적 세탁지식($r=.228$, $p<.05$)과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객관적인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올바른 세탁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강박성세탁이 낯새가 나는 것 같거나 웬지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에 의해서 하는 세탁이며 조금이라도 더러워졌다고 생각이 들면 씻어야 하는 성향을 내포한 ‘오염강박’($r=.418$, $p<.001$) 요인이 객관적세탁지식보다 더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Table 5.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Obsessive-Compulsive behavior and Laundry Knowledge

	Checking	Doubting	Contamination	Subjective knowledge	Objective knowledge
Laundry condition control	.058	.040	.291*	.377**	.173
Obsessive-Compulsive laundry	.193	.293	.418**	.051	.228*

* $p<.05$; ** $p<.01$; *** $p<.001$

V. 결론

소비자의 세탁행동을 알아보는 연구는 소비자의 세탁 방법 실태나 소비자 불만 사항 중에서 세탁과 관련한 사례들을 알아보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진행되어왔다. 특히 소비자의 취급표시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봄으로써 소비자의 세탁행동 중 어떤 것이 실수를 유발하는지에 관한 연구 위주로 진행되어 세탁행동 내에 소비자들의 심리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가 세탁하는 이유가 깨끗함에 대한 강박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여 소비자의 세탁행동 현황을 알아보고 깨끗함에 대한 강박 및 세탁지식과 세탁행동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를 요약한 것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의 세탁행동 현황으로 세탁빈도 및 세탁 시 우선순위를 알아보았다. 세탁빈도는 깨끗함에 대한 강박보다 세탁물의 양과 관련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녀의 수 및 자녀의 나이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잦은 세탁이 깨끗함에 대한 강박과 연관이 되어있기 보다는 절대적인 세탁물의 양이 많은 환경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탁 시 우선순위를 알아본 결과 얼룩제거가 다른 모든 우선순위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소비자가 세탁행동의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을 오염원의 제거의 정도를 이용하여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깨끗함에 대한 강박과 세탁지식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확인과 오염강박 요인이 주관적 세탁지식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에 소비자의 깨끗함에 대한 강박이 객관적인 세탁지식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은 스스로의 청결 기준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소비자의 세탁행동이 임의적이고 비과학적인 행동이라고 했던 선행연구들(Kim, 1984; Nam, 1988; Ryu & Lee, 1999) 뒷받침하는 결과이며 소비자들이 옳지 않은 세탁행동을 지속하는 원인(Nam, 1988; Ryu & Lee, 1999; Kim, 2015)이기도 하다.

소비자의 세탁행동과 깨끗함에 대한 강박 및 세탁지식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세탁행동 중 세탁조건고려는 주관적 세탁지식과 오염강박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소비자들이 세탁 조건 고려 시에 오염원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효과적으로 제거된 상태가 오염강박과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 세탁지식과 관련이 있기보다는 주관적인 세탁지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탁행동 중에서 강박성세탁의 경우 유일하게 객관적 세탁지식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깨끗함에 대한 강박이 심할수록 청결유지 행동에 대한 관여가 높기 때문인(Leckman et al. 1997)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염강박과 더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점을 고려하면 세탁지식을 올바르게 아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세탁행동이 올바른지는 관련이 없을 수 있다. 객관적인 지식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소비자가 이해한다고 해서 행동이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Day, 1976). 특히 세탁지식을 바탕으로 세탁행동이 이루어지는데 세탁조건을 고려할 때마저 주관적 세탁지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 세탁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세탁 방법이 옳을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또한 오염원 제거를 제일 높은 우선순위로 두고 세탁을 하다 보면 오염원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해서 세탁을 할 수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해 의복에 손상이 더 쉽게 오고 내구성 및 형태 안정성 역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올바른 세탁 방법을 고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종합하여 볼 때, 선행 연구에서 진행하였던 때보다 지속가능한 세탁방법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더 쉬운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세탁행동 경향이 크게 바뀌지 않은 것은 세탁행동이 습관으로 고착되면 바꾸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세탁행동을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세탁행동을 시작하는 초반기나 중등교육 과정 내에서 세탁과정 전반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세탁 주체자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올바르게 지속가능한 세탁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참고문헌

- Bae SW, Lee MS. (1994). A study on consumer's perception and attitude to care labels of textile products. *J Korean Soc Cloth Text*, 18(4), 480-489.
- Choo T, Song J. (2000). The actual condition of care label attached to clothing and consumers' perception. *J Korean Soc Cloth Ind*, 2(4), 331-338.
- Day GS. (1976). Assessing the Effects of Information Disclosure Requirements. *J Marketing*, 40(2), 42-52.
- Gram-Hanssen K. (2011). Understanding change and continuity in residential energy consumption. *J Consum Cult*, 11(1), 61-78.
- Jack T. (2013). Nobody was dirty: Intervening in inconspicuous consumption of laundry routines. *J Consum Cult*, 13(3), 406-421.
- Jones MK, Menzies RG. (1997). The cognitive mediation of obsessive-compulsive handwashing. *Behav Res Ther*, 35(9), 843-850.
- Jones MK, Menzies RG. (1998). Danger ideation reduction therapy (DIRT) for obsessive-compulsive washers. A controlled trial. *Behav Res Ther*, 36(10), 959.
- Kim BM. (1984). An investigation study on the awareness and attitude of homemakers to detergent. *Fam Environ Res*, 22(4), 121-129.
- Kim TM. (2015). Study on the laundry behavior according to the number of household and the type of washer.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23(6), 1082-1096.
- Ko SY, Kim CH, Park JH, Lee HJ, Lee JH, Lee KH. (2007). Laundering and care of knitwear products. *J Korean Soc Cloth Text*, 31(10), 1364-1372.
- Kruschwitz A, Karle A, Schmitz A, Stamminger R. (2014). Consumer laundry practices in Germany. *Int J Consum Stud*, 38(3), 265-277.
- Laitala K, Boks C, Klepp IG. (2011). Potential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s in laundering. *Int J Consum Stud*, 35(2), 254-264.
- Leckman JF, Grice DE, Boardman J, Zhang H, Vitale A, Bondi C, Alsobrook J, Peterson BS, Cohen DJ, Rasmussen SA, Goodman WK, McDougle CJ, Pauls DL. (1997). Symptoms of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m J Psychiatry*, 154(7), 911-917.
- Lee HS, Lee J, Kim SG, Kim M, Lee H. (2004). A Study on the laundry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Home Econ Edu Assoc*, 16(3), 147-161.
- Lee MJ. (2010). *Development of PBL model for clothing & textile section in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class - focused on the 2007 revision*. (Maste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of Education.
- Min BB, Won HT. (1999).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translations of Maudsley Obsessional - Compulsive Inventory and Padua Inventory. *Korean J Clin Psychol*, 18, 163-181.
- Nam SW. (1988). A Study on the awareness of detergents and washing method. *Chung Ang Journal of Human Ecology*, 2, 107-120.
- Ryu DH, Lee BY. (1999). The study of relationship among housewife's backgrounds, laundry practice, laundry concept and interests about environmental pollution. *Korean J Hum Ecol*, 8(1), 109-124.
- Shin S. (2000). Consumers' use of care-label information in the laundering of apparel products. *J Text I*, 91(1), 20-28.
- Shove E. (2003). Converging conventions of comfort, cleanliness and convenience. *J Consum Pol*, 26(4), 395-418.
- Shove E, Pantzar M, Watson M. (2012). *The dynamics of social practice: Everyday life and how it changes*. London: Sage.